

# 청해진의 해상방위와 군사운용\*

신 성 재\*\*

1. 머 리 말
2. 청해진의 기병과 병력 구성
3. 해적의 발호와 활동 공간
4. 청해진 설치와 수군활동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흥덕왕(興德王) 3년(828) 4월, 신라(新羅)는 완도에 대규모의 군사가 주둔하는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였다. 신라가 군사적 요충지에 진(鎭)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한다. 중고기에 동해안 방면으로 침입해 오던 왜인을 방어하기 위해 임해진(臨海鎭)과 장령진(長嶺鎭),

\* 이 논문은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2010년도 학술연구과제 지원계획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해군사관학교 군사학처 군사전략학과 조교수.

대표 논저 : 「태봉과 후백제의 덕진포해전」 『군사』 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태봉의 수군전략과 수군운용」 『역사와 경계』 75, 부산경남사학회, 2010 ; 「궁예와 왕건과 나주」 『한국사연구』 151, 한국사연구회, 2010.

장봉진(長峰鎭)을 설치한 전례가 있고, 통일기인 658년(태종 무열왕 5)에는 발해(渤海)와 말갈족에 대처하기 위해 강원도 강릉에 북진(北鎭)을 설치하기도 하였다.<sup>1)</sup> 통일을 완수한 뒤인 782년(선덕왕 3)에는 서북방으로의 진출을 위해 황해도 평산(平山)에 본영을 둔 패강진(溟江鎭)을 설치하였다.<sup>2)</sup> 이들 군진(軍鎭)은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민족의 침입에 대한 방위를 목적으로, 혹은 국경 지대에 대한 개척과 지방통치를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었다.<sup>3)</sup>

신라 말기에 설치한 청해진 또한 기존에 설치하였던 군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면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발호한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한 해상 군진이면서, 동시에 장보고(張保臯)가 무역활동의 거점으로 적극 운영한 점이 특징적이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청해진 설치의 배경을 해적 퇴치와 해상교통로 보호로 파악하고 장보고가 청해진을 무역기지로 삼아 동아시아 삼국을 아우르는 국제해상무역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이해해온 점은 그것을 반영한다.<sup>4)</sup>

하지만 주목할 만한 여러 성과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말기의 해상방위 문제와 연계하여 청해진의 군사운용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청해진의 전략상 위치를 살핀 논고를 비롯하여<sup>5)</sup> 방위체제의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청해진의 관할 구역과 군사전략적인 중요성을 다룬 성

1) 『三國史記』 권3, 소지마립간 15년 7월·22년 봄 3월 ; 『三國史記』 권5, 태종 무열왕 5년 3월.

2) 『三國史記』 권9, 선덕왕 3년 ; 『三國史記』 권40, 직관지 하 외관 패강진전.

3) 신라의 군진에 대한 이해는 鄭泰憲, 『淸海鎭과 他軍鎭과의 比較적 考察』 『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張保臯 新研究』, 샘물, 2000) ; 全德在, 『新羅 下代 鎭의 設置와 性格』 『軍史』 35, 國防軍史研究所, 1997 ; 尹載云, 『新羅 下代 鎭의 再檢討』 『史學研究』 58·59, 韓國史學會, 1999 참조.

4) 장보고와 청해진 관련한 연구 동향은 위은숙, 『나말 무역사 연구동향과 과제』 『貿易 評論』 2, 慶星大學校 貿易研究所, 1995 ; 권덕영, 『張保臯 研究의 現況과 課題』 『장보고연구논총』 4,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2005 ; 최근식, 『신라해양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15~46쪽 ; 고경식, 『淸海鎭 張保臯勢力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正上直樹, 『일본에서의 장보고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및 『장보고의 해양활동과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장보고대사의 활동과 그 시대에 관한 문화사적 연구』 1,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7) 참조.

5) 方東仁, 『淸海鎭의 戰略上 位置』 『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과<sup>6)</sup> 등을 통해 해상 군진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는 강조되었지만,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 방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청해진 소속의 군사들이 수행한 수군활동의 구체적인 실상과 신라 말기의 해상방위체제가 갖는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주목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특히 당대의 해상방위체제에서 수군이 차지하던 군제사적 위치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sup>7)</sup>

이러한 문제의식에 주목하여 근래까지 진행된 이 방면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청해진을 해군 부대로, 그 군사에 대해서는 수군 및 해군으로, 장보고에 대해서는 수군장 또는 수군지휘관으로 칭하는 등 그 병력의 구성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없이 곧바로 등치시켜 서술해온 점이 발견된다.<sup>8)</sup> 그러나 청해진의 군사활동을 전하는 관련 기록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그 병력은 온전히 수군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839년 신무왕(神武王)과 민애왕(閔哀王)이 벌인 왕위쟁탈전에 참가하여 신무왕의 등극에 기여한 청해진 군사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특별히 기병(騎兵)<sup>9)</sup>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청해진의 병력 구성이 해전을 담당하는 수군뿐만 아니라 육전에서 전투 역량이 높았던 기병과 보병들이 모두 반영되어 조직되었음을 말해준다.

해상방위를 목적으로 설치된 청해진에 정예 기병과 보병들이 포함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신라 정부가 해적의 발호 문제에 대해 군사적인 차

6) 고경석, 「신라 말기의 해상방위와 청해진」 『STRATEGY 21』 4권 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7) 신라 수군제에 대해서는 趙二玉, 「新羅 水軍制의 確立과 三國統一」 『STRATEGY 21』 (가을·겨울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 고경석, 「신라 수군의 변화과정 연구」 『대의문물교류연구』 8, 해상왕장보고연구회, 2009가 참고된다.

8) 海軍本部 政訓監室, 『韓國海戰史(上)』, 1962, 112~114쪽 ; 崔碩男, 『韓國水軍活動史』, 鳴洋社, 1965 ; 53~56쪽 ; 오봉근,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1998, 95~101쪽.

9) 원문에는 '마군(馬軍)'과 '마병(馬兵)'으로 나오지만 기병으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마군과 마병을 곧바로 기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동력과 전투력이 높은 기병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사회에 대한 통치력이 점차 약화되고, 해적들이 연해안 지방에서 창궐하던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군사들을 어떠한 형태로 조직하여 제압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수군과 기병, 보병을 기간 병력으로 설치된 청해진의 해상방위가 갖는 특징을 군사운용의 전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하였다.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839년 무주(武州)와 대구(大丘)에서 벌어진 신라 정부군과 청해진 군사와의 전투 사례를 중심으로 청해진 군사의 구성을 살펴볼 것이다. 『삼국사기』 열전 김양(金陽)의 기록에 나오는 청해진 소속 기병의 활약상에 주목하여 그 군사의 구성적인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청해진의 1만 군사조직에 기병과 보병이 편성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해적의 규모가 크고 해상과 내륙을 연결하여 조직적으로 약탈행위가 발생하던 상황에서 수군과 기병, 보병을 반영하는 형태로 청해진의 군사들이 편성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끝으로 4장에서는 청해진 군사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수군활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고대 이래 지속되어온 군사운용 방식의 특징과 연계하여 청해진의 해상방위사적 의의를 정리할 것이다.

## 2. 청해진의 기병과 병력 구성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김양(金陽)의 전기를 읽다보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구절과 접하게 된다. 839년 장보고의 청해진 군사 5천이 김흔(金昕)이 지휘하던 신라의 정부군 10만 대군을 대구전투에서 궤멸시켰다고 전하는 기록이 그것이다. 청해진의 군사가 신라 정부군과 싸움을 벌이게 된 배경은 흥덕왕 사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벌어진 김균정(金均貞)과 계룡(梯隆 : 희강왕)간의 왕위쟁탈전에서 김균정이 패배하자, 그의 아들인 김우

징(金祐徵)이 잔당을 이끌고 장보고에게 의탁하면서부터였다.<sup>10)</sup> 장보고에게 의탁한 김우징은 거병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기회는 김명(金明 : 민애왕)이 새로이 등극한 희강왕(僖康王)을 꺾박하여 자진케 하고 왕위를 탈취하면서 마련되었다.<sup>11)</sup> 그리하여 838년 3월부터 839년 윤정월까지 김우징을 후원하는 청해진의 군사와 신라 정부군간에 무주와 대구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싸움에서 불과 5천의 병력으로 출정한 청해진군은 민애왕의 10만 대군을 궤멸시키면서 김우징을 왕위에 옹립하는 수훈을 세운다.

① (838년) 3월에 군센 군사(勤卒) 5천으로 무주(武州)를 습격하여 성 아래에 이르니 주의 사람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이어서 남원(南原)으로 나아가 신라 군사(新羅兵)과 싸워 이겼다. 우징은 군사들이 오래 피로하였으므로 다시 청해진으로 돌아가 군사를 양성하고 군마를 휴양시켰다. ... ② 김양이 평동장군(平東將軍)이라 일컫고 12월에 다시 출동하니 김양순(金亮詢)이 무주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합쳤다. 우징은 또 용맹한 염장(閔長)·장변(張弁)·정년(鄭年)·낙금(駱金)·장건영(張建榮)·이순행(李順行) 등 여섯 장수로 군사를 통솔케 하니 군용이 심히 성하였다. 북을 치며 행진하여 무주 철야현(鐵冶縣) 북천(北川)에 이르니 신라의 대감(大監) 김민주(金敏周)가 군사로써 막았다. 장군 낙금과 이순행이 마병(馬兵) 3천으로 저쪽 진중(陣中)을 돌파해 들어가 거의 다 살상하였다. ③ 4년(839) 정월 19일에 군사가 대구(大丘)에 이르니, 왕이 군사로써 항거하므로 이를 역습하여 이기니 왕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나고 생포하고 죽인 자의 수를 능히 셀 수 없었다. 이때 왕이 허겁지겁 이궁(離宮)으로 들어갔는데 군사들이 찾아 살해하였다. ... ④ 김양

10) 흥덕왕 사후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으로 이어지는 왕위계승 과정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성과를 참조. 李基東,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歷史學會, 1980 (『新羅骨制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尹炳喜, 「新羅 下代 均貞系의 王位繼承과 金陽」 『歷史學報』 96, 歷史學會, 1982 ; 李明植, 「新羅 下代 金周元系의 정치적 입장」 『大丘史學』 26, 대구사학회, 1984 ; 文暻鉉, 「神武王의 등장과 金昕」 『조항래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 權英五, 「新羅下代 王位계승분쟁과 閔哀王」 『韓國古代史研究』 19, 한국고대사학회, 2000 ;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 金杜珍, 「신라 신무왕대의 정치세력과 장보고」 『장보고대사의 활동과 그 시대에 관한 문 화사적 연구』 1,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7.

11) 『三國史記』 권10, 희강왕 3년.

(金陽)의 종부형 혼(昕)의 자는 태(泰)요, 아버지 장여(璋如)는 벼슬이 시중 파진찬에 이르렀다. 혼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 개성 기미년(839) 윤정월에 대장군이 되어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대구에서 청해진 군사 침입을 막다가 패하였다.<sup>12)</sup>

청해진군과 신라 정부군간의 대전(大戰)은 대략 세 시기로 나뉘어 치러졌다. 838년 3월 무주와 남원에서의 1차 전투를 시작으로(사료 ①), 동년 12월 무주 철야현에서의 2차 전투(사료 ②), 이듬해인 839년 대구에서의 마지막 전투가 그것이다(사료③, ④).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전투에서는 5천에 불과했던 청해진 군사<sup>13)</sup> 10만에 달하는 신라 정부군과 싸워 승리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주목된다(사료 ④). 워낙 단편적인 기록이자 극적인 전황을 담고 있는 기록이었기 때문인지 그동안 이 전투에 참가한 양군의 병력 수치에 대해서는 신빙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자들간에 이견이 있어 왔다.

처음 제기된 견해에서는 청해진의 병력 수치를 정부군 10만과 동일한 규모로 파악하였다. 전투에서 지휘관의 지휘력과 병사들의 사기가 승패에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병력이 상대방에 비하여 형편없이 적다고 하다면 중과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므로 10만의 군사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해진군은 김우징의 세력 기반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집해 왔던 군사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장보고의 직속 부대에 속한 군사들로 그 수는 10만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한다.<sup>14)</sup> 이 견해는 장보고가 처음 청

12) 『三國史記』 권44, 열전 제4 김양, “三月 以勁卒五千人 襲武州至城下 州人悉降 進次南原 迓新羅兵與戰, 克之 祐徵以士卒久勞 且歸海鎮 養兵秣馬 ... 陽號爲平東將軍 十二月再出 金亮詢以鵝洲軍來 祐徵又遣驍勇閻長·張弁·鄭年·駱金·張建榮·李順行六將統兵 軍容甚盛 鼓行至武州鐵冶縣北州 新羅大監金敏周以兵逆之 將軍駱金·李順行以馬兵三千突入彼軍 殺傷殆盡 四年正月十九日 軍至大丘 王以兵迎拒 逆擊之 王軍敗北 生擒斬獲 莫之能計 時王顛沛逃入離宮 兵士尋害之 ... 從父兄昕 字泰 父璋如仕至侍中波珍浪 昕幼而聰悟 好學問 ... 開成己未閏正月 爲大將軍 領軍十萬 禦清海兵於大丘 敗績.”

13) 『三國史記』 권10, 민애왕 원년.

14) 김주성, 「張保臯세력의 흥망과 그 배경」 『韓國上古史學報』 24, 韓國上古史學會, 1997, 167~170쪽.

해진을 설치하던 828년에는 1만여 명의 병력을 거느렸지만<sup>15)</sup> 이후 대대적으로 병력을 양성하여 왕위쟁탈전이 벌어지던 839년 즈음에 이르러서는 신라 정부군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반해 신라 정부군 10만은 당시 신라가 보유하던 전체 병력이고, 실제 전투에 참가한 병력은 청해진의 5천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기도 한다. 민애왕이 동원한 군대는 공병(公兵)인 신라의 전체 병력이 아니라 자신과 측근으로 구성된 사병(私兵)이었고, 그 수 역시 청해진의 병력을 크게 상회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청해진의 군사들이 아무리 훈련이 잘된 병사라고 하더라도 10만의 군사로 구성된 정부군을 궤멸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sup>16)</sup> 이는 청해진이 완도와 인근에 거주하던 변민(邊民)들을 규합하여 일종의 민군(民軍) 조직으로 설진하였던 군진이므로<sup>17)</sup> 그 전투력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정부군의 규모를 청해진의 병력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입장이다.

한편 근래에는 양군의 병력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해진의 우세한 기병에 주목한 견해가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청해진의 5천 군사 중에서 주력으로 편성한 기병 3천이 가공할만한 파괴력과 살상력, 조직적인 전법을 발휘하여 정부군을 처참하게 궤멸시켰다고 한다. 청해진군은 치밀하게 조직화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질서있는 군대였음에 비해 민애왕의 군대는 대부분 급하게 징발한 농민들이었을 공산이 크다고 보았다.<sup>18)</sup> 신라 말기로 접어들면서 당(幢)과 정(停)을 주축으로 하는 지방의 군사조직이 무너져가던 상황이었으므로<sup>19)</sup> 민애왕이 10만의 정규군을 동원하기란 어려웠을 것이고, 대부분 급하게 징발하여 구성한 농민들이 주축을 형성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15) 『三國史記』 권10, 흥덕왕 3년.

16) 권영오, 2000, 앞의 논문, 289~291쪽.

17) 金庠基, 「古代的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여」 『震檀學報』 1·2合, 震檀學會, 1934~1935(『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21~22쪽).

18) 徐榮教, 「張保臯의 騎兵과 西南海岸의 牧場」 『진단학보』 94, 진단학회, 2002, 55~64쪽.

19) 李基白, 「新羅私兵考」 『歷史學報』 9, 歷史學會, 1957(『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260쪽).

청해진의 군사와 신라 정부군의 수치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제기된 견해들을 청해진 설치 즈음에 보이는 신라의 군사 동원 능력과 비교하여 개략적인 수준에서 추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먼저 청해진의 군사가 10만명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보거나, 정부군이 청해진의 병력 5천과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당대의 사실을 전하는 기록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장보고가 출정하던 정년(鄭年)에게 싸움의 대의를 밝히며 5천의 군사를 내어준 사실이 확인되고,<sup>20)</sup> 김흔이 지휘한 정부군 10만이 패전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전하기 때문이다(사료 ④).

양군의 병력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정부군의 구성을 대부분 급하게 동원한 농민군으로 보는 견해에도 의문점은 남는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인 819년(헌덕왕 11) 7월의 기록을 보면, 신라는 이사도(李師道)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당 현종(顯宗)이 구원병을 요청하자 무장한 군사(甲兵) 3만을 동원하기도 하였다.<sup>21)</sup>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3년 뒤인 822년(헌덕왕 14)에는 김헌창(金憲昌)이 전국적인 규모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중앙정부를 위협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도 신라 정부는 진압군을 조직하여 반란군을 평정하는 능력을 보였다.<sup>22)</sup> 왕권이 안정적이었던 중대에 비해 지방사회에 대한 통치력이 약화되어 가는 추세였지만, 하대의 상황에서도 신라 정부는 원정군과 진압군을 조직할 정도로 지휘 및 동원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병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sup>23)</sup>

민애왕이 다수의 농민들을 징발하여 정부군을 조직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청해진 군사와의 1차 전투를 이미 경험한 상황이었고, 향후 전개될

20) 주 13)과 같음.

21) 『三國史記』 권10, 헌덕왕 11년 7월.

22)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 제10 헌덕왕 14년. 김헌창의 반란을 다룬 성과는 다음과 같다. 黃善永, 『新羅 下代 金憲昌 亂의 性格』, 『釜山史學』 35, 釜山大學校史學科, 1998(『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박용국, 『新羅 憲德王代 金憲昌의 亂과 晉州 地域』, 『퇴계학과 한국문화』 37,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5; 朱甫暉,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한국고대사학회, 2008.

23) 신라 말기의 공병에 대해서는 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993, 389~417쪽 참조.

전면전에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므로<sup>24)</sup> 2차 전투가 발발하기까지의 공백 기간을 이용하여<sup>25)</sup> 징발한 농민들을 군사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확보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전투 능력을 배양시킨 다음 정규군으로 편성된 여러 부대에 배속시키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신라 정부군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일단 헌덕왕대 대당 원정군 3만명을 징발한 전례가 있고, 김현창의 반란시 대규모의 진압군을 편성하였던 것으로 보아서는 최소 3만명은 상회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10만의 병력으로 대항하다가 패전하였다고 전하는 기록을 고려해본다면 대략 5만명 이상의 규모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

이에 비해 청해진의 군사 5천은 실제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청해진이 설치되던 당시에 흥덕왕이 사여해준 군사가 1만이었다고 하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보고가 출정하던 정년에게 5천의 병력을 내어준 기록에서 그러하다. 만약 청해진의 군사가 신라 정부군 10만의 병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한다면 출정하던 청해진의 군사는 5천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땅히 신라 정부군에 필적할 만한 규모의 병력이 출정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출정한 병력이 5천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치가 기록으로 남겨졌다는 것이다.<sup>26)</sup> 이러한 입장에서 보아 특별히 청해진의 군사 5천이 '경졸(勁卒)'로 표현된 점이 주목된다(사료 ①). 보통의 군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던 군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군센

24) 李熙眞, 「청해진의 사병(私兵)적 성격 여부에 대한 검토」 『先史와 古代』 20, 韓國古代學會, 2004, 245쪽.

25) 기록상 838년 3월의 1차 전투에서 동년 12월의 2차 전투까지는 약 9개월간의 전투 공백이 발생한다.

26) 청해진 설치시에 흥덕왕으로부터 사여받은 군사 1만이 이후 늘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해적퇴치 활동과 무역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장보고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주와 대구전투에서 5천의 병력만이 출정한 사례를 통해 보건데 그 증가 수효는 많지 않았던 듯하다. 해적퇴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병력 손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사로 표현되었던 듯하다. 이 점은 청해진이 설치될 당시의 군사적인 역량과 병력의 구성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청해진이 설치되던 초기 단계부터 우수한 전투능력을 보유한 병력과 함께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거쳐 양성된 군사들이 그 군사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sup>27)</sup>

청해진의 군사들이 고도로 훈련된 병력이었으며, 또한 매우 정예로운 역량을 발휘했던 사실은 무주 전투에 나오는 기병의 활약상을 통해서 입증된다(사료 ②). “장군 낙금과 이순행이 마병(馬兵) 3천으로 저쪽 진중(陣中)을 돌파해 들어가 거의 다 살상하였다.”고 전하는 내용은 기병의 활약상이 매우 정예로웠고 조직적인 전법을 구사하였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 점은 청해진의 병력 구성이 설치 단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기병의 전투 역량을 증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청해진의 군사조직에는 수군과는 별도로 3천명 이상의 기병이 설치 단계부터 편성 및 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청해진의 군사조직에 기병이 상당수 편성된 이유에는 장보고 자신이 당의 서주(徐州)에서 번진세력을 토벌시에 창기병을 지휘하여 전공을 세웠던 경험도<sup>28)</sup> 반영되었을 것이다. 두목이 저술한 『번천문집(樊川文集)』에 따르면 장보고는 “말을 타고 창을 쓰는 데 본국은 물론 서주(徐州)에서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sup>29)</sup> 칭송될 정도로 기병운용술에 정통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번진 세력을 토벌하던 과정에서 기병의 효용성과 가치를 경험하였던 만큼 장보고는 기병력의 전술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에서 청해진의 병력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해상에서 해적을 소탕하는 임무는 수군을 동원하여 해결할 문제였지만, 도서와 연해안 지방

27) 청해진이 설치되던 828년과 대구·무주전투가 발생한 839년간에는 10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한다. 이 차이에 주목해보면 지역민을 정예 군사로 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하지만 청해진이 설치됨과 동시에 해적을 퇴치하는 등 군사활동에 두각을 보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 주력은 기 양성되어 군무활동에 종사하던 군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8)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205쪽.

29) 『樊川文集』 권6, 장보고·정년, “騎而揮槍 其本國與徐州無有能敵者.”

에까지 해적행위가 심각하게 자행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수군과의 협공전술을 고려하는 가운데 기병과 보병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청해진이 단순히 해상활동만을 위한 곳이 아닌<sup>30)</sup> 해상과 내륙을 연결하여 발생하고 있던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던 군진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해상방위 문제에 대처하기 적합한 형태의 군진으로 조직 및 운용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 3. 해적의 발호와 활동 공간

청해진의 군사조직에 기병과 보병이 상당수 반영되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군진 설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해적(海賊)<sup>31)</sup>의 발호를 중심으로 그 실체와 활동 공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발호한 해적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자. 『삼국사기』의 기록이 전하는 것처럼 820년대는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해적들이 우후죽순처럼 창궐하여 신라인들을 붙잡아가 인신 매매행위를 일삼던 시기였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불법적인 약탈행위를 일삼던 해적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던 현실이었다. 중앙정부가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지화된 진골귀족들간의 잦은 왕위쟁탈전으로 말미암아<sup>32)</sup> 지방사회에 대한 통치력이 약화되어 가는 추세에 비해 발호한 해적들은 그 세력이 크고 강성하였기 때문이었다.

30) 徐命希, 『淸海鎮大使 張保臯에 관한 연구』 『震檀學報』 92, 震檀學會, 2002, 20쪽.

31) 9세기 전반 황해를 무대로 활동한 해적은 당인, 신라인, 당과 신라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적의 국적에 대한 제 견해는 權惠永, 『新羅下代 西·南海域의 海賊과 豪族』 『韓國古代史研究』 41, 한국고대학회, 2006, 307쪽 주11 참조. 중국과 서양의 해적에 대해서는 鄭廣南, 『中國海賊史』, 華東理工大學出版社, 1998 ; 金州植, 『中國海賊의 歷史的 特徵』 『장보고연구논총』 4,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2005 ; 앵거스컨스텀(이종인 옮김), 『해적의 역사』, 가람기획, 2002 참조.

32) 李基東, 1980, 앞의 논문, 36쪽.

주지하듯이 해적은 강도의 한 형태로서 해상이나 해안을 무대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고 인명을 살상하던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해양성과 국제성, 이념 부재의 폭력성과 집단성, 통치외적 존재로서의 불법성을 가진 자들로 9세기 초 한반도의 해역에 대거 등장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배를 타고 다니며 타인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규모의 인원과 조직적이고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고가의 선박과 우수한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sup>33)</sup> 도적과 초적이 간단한 농기구를 이용하여 무장을 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들 해적은 선박이나 선원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무기류 등을 갖추어야만 활동이 가능하다. 청해진이 설치되던 시기에 발호했던 해적들 역시 선박을 보유하고 일정 인원의 무장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sup>34)</sup> 약간 뒤 시기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10세기 초반의 사실을 전하는 아래 기록은 청해진 설치시에 활동하였음직한 해적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드디어 광주 서남의 경계인 반남현(潘南縣) 포구에 이르러 적의 경계에 첩보망을 늘어 놓았다. 그 때에 압해현(壓海縣)의 적수(賊帥) 능창(能昌)이 해도에서 일어났는데, 수전을 잘하여 수달이라고 불리었다. 그는 망명한 이들을 모아 갈초도(葛草島)의 작은 도적들과 연결하여 태조가 오는 것을 기다려 해치려고 하였다. 태조가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능창이 이미 내가 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반드시 도적들과 변을 일으킬 것이다. 적도의 무리가 비록 적으나, 만일 세를 합하여 우리의 앞과 뒤를 막는다면 승부를 알 수 없다. 물에 익숙한 자 10여 인으로 하여금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가벼운 배를 타고 밤에 갈초도 입구로 가서 음모하려고 왕래하는 자를 사로잡아 그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그 말에 좇아 과연 한 척의 작은 배를 잡으니, 그가 바로 능창이었다. 태조가 그를 잡아 궁예에게 보냈더니, 궁예가 크게 기뻐하고 능창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하기를, “해적(海賊)이

33) 權惠永, 2006, 앞의 논문, 304쪽.

34) 김호범, 「신라 흥덕왕대의 청해진 설치 배경」 『역사학연구』 29, 호남사학회, 2007, 61쪽.

모두 너를 영웅으로 추대하지만, 지금은 나의 포로가 되었으니 어찌 나의 계책이 신묘치 않은가?” 하고 곧 여러 사람에게 보인 후 참하였다.<sup>35)</sup>

위 기록은 청해진이 설치된 시점으로부터 약 80여년이 경과한 910년 초에 태봉(泰封)의 수군장수 왕건(王建)이 서해 남단의 다도해 지방을 대상으로 수군활동을 전개하던 중 압해현(壓海縣)에서 활동하던 능창(能昌)을 사로잡은 사실을 전하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는 특별히 사로잡힌 능창이라는 인물의 활동을 통하여 인접한 시기에 존재하였음직한 해적의 규모와 그 실상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해적으로 묘사된 능창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후백제(後百濟)의 왕 견훤(甄萱)의 부하로 보거나,<sup>36)</sup>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한 해상세력,<sup>37)</sup> 견훤의 휘하 세력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활동한 해적,<sup>38)</sup> 원래는 해적이었지만 10세기 초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리적인 이념을 내세우면서 호족화한 해상호족으로<sup>39)</sup> 파악하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연구되어온 추세로 보아서는 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해상세력 또는 해상호족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순수한 상행위에 종사하던 해상세력이라 하더라도 호위 무사를 고용하는 등 자체의 무장력을 갖추어 활동하였고,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교역행위 과정에서 탈법과 약탈 행위를 벌였던 경우도 있었던 점을<sup>40)</sup> 감안한다면 청해진이 설치되

35)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양 개평 3년, “遂至光州西南界潘南縣浦口 縱謀賊境 時有壓海縣賊帥能昌起海島 善水戰 號曰水獺 嘯聚亡命 遂與葛草島小賊相結 候太祖至 欲邀害之 太祖謂諸將曰 能昌已知我至 必與島賊謀變 賊徒雖小 若并力合勢 遏前絕後 勝負未可知也 使善水者十餘人 擐甲持矛乘輕舫 夜至葛草渡口 擒往來計事者 以沮其謀可也 諸將皆從之 果獲一小舫 乃能昌也 執送于裔裔大喜 乃唾昌面曰 海賊皆推汝爲雄 今爲俘虜 豈非我神筭乎 乃示衆斬之.”

36) 中虎澈,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83, 31~32쪽.

37)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154쪽; 姜鳳龍, 『押海島의 변영과 쇠퇴』 『島嶼文化』 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0, 42~44쪽.

38) 권덕영, 『신라 하대 서·남해 해적과 張保臯의 해상활동』 『대의 문물교류 연구』 창간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23~26쪽.

39) 權惠永, 2006, 앞의 논문, 316~329쪽.

40) 軍소 해상세력이 벌인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김호범, 2007, 앞의 논문, 61~64쪽 참조.

던 시기에 활동한 해적의 사례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sup>41)</sup>

능창을 해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우선 이들의 발생과 세력화 과정이 주목된다. 위 기록이 말해주듯이 해적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력이 미치지 어려운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이동 수단을 선박에 의지해야 하는 도서 지방은 해적이 발생하여 세력을 결집하는 데 안성마춤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능창이 해도(海島)에서 일어났다”거나 “망명한 이들을 모아 갈초도의 작은 도적들과 연결하여 태조가 오는 것을 기다려 해치고자 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내륙과 동떨어진 도서지방이 해적의 발생과 세력 성장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되었음을 일러준다. 해적의 세력 성장은 몰락한 농민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지방의 세력가에게 몸을 투탁하였던 것과 동일하게<sup>42)</sup>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던 연해민들 중에서 자활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의탁해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특히 재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항해술과 조선술로 대표되던 해양 기술과 해양 정보를 지녔던<sup>43)</sup> 해적들은 무의탁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였을 것이다. 능창과 같은 인물은 그 전형적인 존재에 해당할 것이다.

기록이 반영하는 것처럼 능창은 세력이 강성하고 조직적인 해적행위를 벌이던 인물이었다. 이 점은 왕건이 “적도의 무리가 비록 적으나, 만일 세를 합하여 우리의 앞과 뒤를 막는다면 승부를 알 수 없다”며 능창이 세력을 합세할 경우를 우려한 발언을 통해서 확인된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910년을 전후로 서해상에서 수군활동을 벌인 왕건을 위시한 태봉의 수군은 무려 전함 70여척에 병력 2천~2천 5백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군대였다.<sup>44)</sup>

41) 청해진 설치시의 해적활동 사례로 능창을 예시한 것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후삼국이 분열되어 신라의 공권력이 제일 허약해진 시기와 분열 이전의 시기를 같이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능창을 해적과는 다른 후백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파악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해적이었던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청해진 설치의 직접적인 이유가 해적의 창궐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일 비교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수준에서 해적의 규모를 이해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 김호범, 2007, 앞의 논문, 61쪽.

43) 권흥永, 2002, 앞의 논문, 6쪽.

44)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양 개평 3년 ; 건화 4년 갑술.

이처럼 대규모로 구성된 정규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건은 능창의 위세를 의식하여 직접적인 해전을 벌이기보다는 예상되는 이동항로에 군사를 매복하여 사로잡는 방식을 취하였다. 능창이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던 다소 규모의 해적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해온다면 대봉수군으로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해적들이 상호 연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성장해가던 해적들은 청해진 설치시에도 존재하면서 지방사회를 점차 위협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청해진이 설치되던 시기의 해적은 정규군과는 다르고, 국가 공권력을 기반으로 설치된 군대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갖는 만큼 이들에 대응하는 군대의 훈련이 다소 부족하고 경험이 적은 상태라 하더라도 제압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sup>45)</sup> 하지만 위 기록이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듯이 9세기 말~10세기 초반을 배경으로 서해와 남해상을 무대로 활동한 능창으로 대표되던 해적은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나 강성함에 있어서도 가벼이 볼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능창이 압해현<sup>46)</sup>의 적수(賊帥)로 표현된 점과 수달이라 불리어질 정도로 수전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고 하는 점, 해적들이 모두 그를 영웅시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이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해적들이 해상전투에 능숙하면서도 특출한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력이 강하고, 일정 해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였음을 말해준다.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로 예상롭지 않은 규모와 체계를 갖춘 해적들이 서남해역에 등장하여 조직적인 해적 행위를 벌여왔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이 보다 앞선 사례로 9세기 말 신라 해적의 대마도습격사건이 주목된다. 기록에 따르면 9월 5일경 신라 해적은 45척의 배를 타고 대마도를 습격하였다가 9월 17일 일본의 문실선우(文室善友)가 이끄는 군대와 격돌

45) 李熙眞, 2004, 앞의 논문, 247쪽.

46) 신안군 압해면 압해도를 말한다.

하여 302명이 목숨을 잃고 11척의 배와 활, 태도(太刀), 방패 등 각종 무기를 빼앗김으로써 10월 6일경에 퇴각하였다고 한다. 이 때 일본에 사로잡힌 해적 현춘(賢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신라는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창고가 비게 되자 신라왕이 곡식과 비단을 빼앗아오라고 명령하였으므로 배를 타고 일본을 습격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원소재지에는 크고 작은 배가 100여 척이 있고 승선 인원은 2,500명 가량이나 되었으며, 인솔한 민첩한 장군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당나라 사람이었다고 한다.<sup>47)</sup> 신라 말기로 치다를수록 해적의 규모가 강대해지고 조직화해 가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징조는 그 이전 시기부터 발견되고 있었을 것이다.

해적의 조직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해적의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즉 해적의 약탈이 진행되던 활동 공간이 그것이다. 해적의 약탈 행위는 해상에서는 물론 해상과 내륙을 연결하는 공간을 막론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먼저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후기』 810년 8월의 기록을 보면 신라의 어느 현(縣)으로부터 왕경으로 세곡을 운반하던 김파(金巴) 형제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출몰한 해적으로부터 습격을 받는다.<sup>48)</sup> 김파 형제들은 다행히 목숨만은 건지는 행운을 얻는다. 하지만 운송작업에 참여했던 동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운송하던 곡식은 모두 빼앗기고 만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곡이 운송되고 있던 항로는 해적들의 주된 약탈 공간이었다. 사절단과 교역품이 이동하는 항로 역시 안전한 공간은 아니었다. 진성여왕(眞聖女王)대의 기록을 보자.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당시 왕의 막내 아들인 아찬 양패(良貝)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백제의 해적(海賊)이 진도(津島)를 가로막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궁사(弓士) 50인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sup>49)</sup> 해적들이 국가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던 사절단의 이동 항

47) 『日本紀略』 전편 권20, 관평 6년 9월 19일·9월 30일·10월 6일 : 『扶桑略記』 권22, 관평 6년 9월 5일. 이상 신라 해적의 대마도습격사건의 상세한 분석은 權惠永, 2006, 앞의 논문, 308~309쪽과 325쪽에 자세하다.

48) 『日本後紀』, 권21, 흥인 2년 8월 갑술.

49) 『三國遺事』 권2, 기이2 진성여대왕 거타지. 진도를 가로막고 있던 해적은 후백제의 협조 세력으로서 황해 연안에서 활동하던 해적집단이었을 것이다(權惠永, 2006, 앞의 논문, 310쪽).

로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대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과 물자, 세곡 및 각종 교역품이 운송되는 해상교통로가 해적활동의 직접적인 공간이었음을 말해준다.

해적의 약탈 행위는 비단 해상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인간과 재화가 집결하며 분배 및 재이송의 출발지인 연해안 지방과 포구 등지에서도 해적행위는 만연하였다. 중국측 사서에 전하는 아래 기록을 보자.

장경 원년(821) 3월 평로군절도사(平盧軍節度使) 설평(薛平)이 아뢰기를, “생각컨대 해적(海賊)이 신라의 양구(良口)를 꺾어 잡아다가 장차(제가) 담당하는 관할 구역인 등주(登州)와 래주(萊州)의 경계 및 연해의 여러 도에까지(緣海諸道) 이르러 매매하여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신라국은 비록 바깥 오랑캐이나 항상 신민임을 알리고 조공이 그치지 않으니 내지와 다름이 없는 데도 그 백성 양인 등이 항상 해적에게 잡혀와서 팔리니 이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제척(制勅)으로 금단하였는데도 그 담당하는 관할이 오랫동안 적(賊)에게 함락되어 있어 이전과 같이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복한 이래 도로가 막힘이 없어 서로 바꾸어 매매하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옳되 바라옵건대 특별히 밝은 칙령을 내려 지금부터는 연해의 여러 도에서 마땅히 위와 같이 해적이 신라의 양인을 꺾어 매매하는 것을 일절 금단하소서. 또한 청컨대 소재 관찰사에게는 엄하게 포착을 더하여 만약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법에 따라 금단하여 칙지에 의거하기 바랍니다.” 하였다.<sup>50)</sup>

위는 821년(헌덕왕 13)에 평로군절도사(平盧軍節度使)였던 설평(薛平)이 당 황제에게 해적의 행위를 금단하는 상주문을 올린 사실을 전한다. 기록이 전하는 바와 같이, 820년대 당나라에서의 해적 행위는 해상에서는 물론 절도사가 관할하던 지방의 경계에까지 이르러 심각한 국제적·사회적

50) 『唐會要』 권86, 노비 장경 원년 3월. “長慶元年三月 平盧軍節度使薛平奏 應有海賊該掠新羅良口 將到當管登萊州界 及緣海諸道 賣爲奴婢者 伏以新羅國雖是外夷 常稟正朔 朝貢不絕 與內地無殊 其百姓良口等 常被海賊掠賣 於理實難 先有制勅禁斷 緣當管久陷賊中 承前不守法度 自收復已來 道路無阻 遞相販鬻 其弊尤深 伏乞特降明敕 起今已後 緣海諸道 應有上件賊該賣新羅國良人等 切禁斷 請所在觀察使嚴加捉搦 如有違犯 便準法斷 敕旨宜依.”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설평이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인 등주(登州)와 래주(萊州)의 경계에까지 그 행위가 미치고 있음을 언급한 것은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해적 행위의 보다 큰 심각성과 폐해는 연해의 여러 도에까지(緣海諸道) 이르러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설평이 황제에게 호소한 상주문의 내용은 중국의 해적선들이 신라의 연해안 지방에서 약탈해간 양민들을 산동의 등주나 래주가 위치한 연해안 지방으로 이송하여 매매하던 상황을 말해준다.<sup>51)</sup> 이러한 상황은 해적의 활동 공간이 연해안 지방과 포구 등지를 거점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목적지인 내륙과 긴밀한 공·수급망을 형성하면서 진행되었음을 반영한다.

중국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해적행위의 심각성 그 행태는 신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은 중앙정부는 물론 흥덕왕을 알현한 장보고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 “중국을 두루 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sup>52)</sup>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음직한 현실 상황을 아뢰면서 청해진과 같은 대규모의 군진을 설치하여 토벌하는 방안이 그 효과적인 대응책이었음을 제시한 점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아마도 장보고는 청해진 설치의 시급성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해적이 활동하던 공간과 해적행위가 이루어지던 경로와 같은 정보를 흥덕왕을 비롯한 여러 신료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해적을 소탕하는 데 소요되는 수군 병력과 전함의 척수, 기병과 보병의 적정 규모, 청해진 운영의 재정적 기반 마련 등도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해진이 설치되던 즈음에 발호한 해적은 신라 말기에 활동한 해적의 규모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규모의 토벌군을 조직해야만 할 정도로 성장한 상태였다. 이들은 해상은 물론 연해안 지방

51) 玉井是博, 『唐代の外國奴 - 特に新羅奴に就いて』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1933(해상왕장보고연구회 편, 『張保臯關係研究論文選集 - 中國篇・日本篇』,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407쪽).

52) 『三國史記』 권44, 열전4 장보고·정년.

과 내륙을 연결하여 조직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적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특히 내륙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송 경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군뿐만 아니라 훈련된 기병과 보병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4. 청해진 설치와 수군활동

해적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약탈 행위를 일삼던 상황에서 신라정부로서는 그에 대응하기 충분한 수준의 군사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828년 4월의 청해진 설치가 그 방안으로, 여기에는 당시까지 파악되었을 해적의 규모와 활동 공간 등이 모두 고려된 것이었다.<sup>53)</sup> 청해진이 해적의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되었음은 무엇보다도 흥덕왕이 장보고에게 1만의 군사를 사여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종래 청해진 설치시 흥덕왕이 사여한 것으로 나오는 군사 1만(卒萬人)의 실체에 대해서는 당시 신라정부의 상황이 그와 같은 규모의 병력을 내어줄 형편이 아니었다는 입장에서 장보고로 하여금 완도 지역에 거주하던 변민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청해진의 군사를 변민들을 대상으로 규합한 일종의 민군조직(民軍組織)으로 파악한 견해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sup>54)</sup> 이 견해는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얻는 가운데 거의 정설화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55)</sup> 필자 역시 완도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지방민들이 일부 동원되었

53) 청해진 설치 배경에는 822년에 발발했던 김헌창의 반란과 같은 내륙의 지방세력과 결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었을 것이다(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の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韓國史研究會, 1982, 42~43쪽). 이러한 사실 역시 청해진의 군사조직에 수군만이 아닌 상다수의 기병과 보병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54) 주 17과 같음.

55) 李永澤, 『張保臯海上勢力에 관한 고찰』, 『韓國海洋大學論文集』 14, 1979, 83~84쪽 ; 金光洙, 『張保臯의 政治史的 位置』, 『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71쪽 ;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1997, 앞의 책, 208~209쪽).

을 가능성에 동의한다. 다만 그러한 군사들이 일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 1만에는 청해진 설치시에 흥덕왕이 사여해준 정예 군사와<sup>56)</sup> 이전 시기부터 서해안의 변경 지방에 설치하여 운영해왔던 여러 성과 진 소속의 군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7)</sup>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이 681년(문무왕 21) 유조시에 남긴 기록을 보면 “변경의 성(城)과 진(鎭)을 지키는 일과 주현(州縣)에서의 세금 징수는 긴요한 것이 아니면 마땅히 헤아려서 모두 폐지하라.”<sup>58)</sup>는 내용이 나온다. 신라가 삼국항쟁과 통일전쟁을 거치면서 변경지대와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대상으로 군사들이 상주하는 성과 진을 설치하여 확보한 영역과 백성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음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성과 진을 근간으로 하는 이러한 방어체제는 해안방어가 요구되는 주요 군사적 거점에도 설치되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충지에는 해상방위를 목적으로 파견한 방수군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 말기로 접어들면서 지방사회에 대한 통치력이 이완되고, 해적활동이 격심해져가던 상황에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배치되었던 성과 진 소속의 소규모 군사만으로는 불특정 해역에 출몰하던 해적을 퇴치하는 데 한계가 따랐을 것이다. 신라 정부가 넓은 범위에 분산 배치하여 운용해왔던 소규모의 군사만으로는 해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한계점을 인식하고 수군활동의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통·폐합하면서 전라도 서해안 지방의 해상방위를 청해진을 본영으로 하는 체제로 재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56) 흥덕왕이 사여해준 정예 군사에 대해서는 남겨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군사적 역량이 출중한 중앙과 지방의 군사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이들은 해적퇴치 활동은 물론 서남해역의 주요 성과 진에 배치되어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57) 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일부 지방군의 지휘권을 이양받고, 여타의 군사들은 군정을 차출하거나 모병을 통하여 보충하였다는 견해가 주목된다(高慶錫, 「장보고 세력의 경제적 기반과 신라 서남해 지역」 『韓國古代史研究』 39, 서경문화사, 2005, 228쪽).

58) 『삼국사기』 권7, 문무왕 21년 6월, “其邊城鎭邊 及州縣課稅 於事非要者 並宜量廢.”

이와 함께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던 당시에 과연 군사 1만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로 보아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기 이전에 귀국하여 활동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신라에서 세력의 근거지를 갖고 있지 못했던 상황에서<sup>59)</sup> 장보고가 1만의 군사를 동원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군사 1만을 모집할 정도로 경제적인 기반 역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다.<sup>60)</sup> 따라서 청해진의 병력 구성은 그것이 설치되던 시점을 전후로 모집한 변민들이 그 주된 기반을 형성하였다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해진 설치시에 흥덕왕이 사여해준 정예 군사들과 지휘 권한을 장보고에게 이속시켜준 여러 성과 진 소속의 지방군, 그리고 완도 인근의 변민들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청해진이 설치되기 1년 전인 '태화(827~835) 이후부터' 또는 설치된 '이후부터' 해상에서 신라인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라졌다고 하는 기록은<sup>61)</sup> 청해진이 설치됨과 동시에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장악하고 해적 소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청해진이 설치되던 단계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사들을 기반으로 조직되었음을 의미한다. 설치시부터 양성된 군사력이 주력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해역에서 발생하던 해적 행위를 근절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청해진의 군사 1만은 해적의 약탈 행위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규모와 형태로 조직된 것이었다. 해상에서 해전을 담당하는 수군과 지상에서의 전투를 담당하는 기병과 보병 등이 모두 편성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청해진의 군사조직에 수군과 기병, 보병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편성되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무주와 대구전투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이

59) 徐兪希, 2002, 앞의 논문, 18쪽.

60) 전덕재, 「신라 하대 청해진의 설치와 그 성격」 『STRATEGY 21』(겨울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71쪽 ; 고경석, 「청해진 장보고세력의 군사적 기반」 『장보고와 동아시아 세계』, 2002, 90쪽.

61) 『新唐書』 권220 동이 신라 : 『三國史記』 권44, 열전4 장보고·정년.

가능하다. 즉 양 전투에 참가한 5천의 보기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청해진의 1만 군사 중 최소 절반은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서 3천은 기병으로 편성되었음이 확실하다. 무주와 대구전투에 동원되지 않고 남아 있던 5천의 군사들이 수군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838년 3월에 있었던 1차 전투에 출정한 5천과 동일한 수준의 병력이 12월과 이듬해에 재차 출정하였던 것으로 보아서는 피로해진 군사를 보충할 정도의 보기병이 청해진에 잔류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수군은 아무리 잡아도 5천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sup>62)</sup>

수군과 기병, 보병을 근간으로 청해진은 해적 퇴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먼저 해상에서 발생하던 해적활동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하던 선단의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례로 장보고가 무역활동을 위해 대당매물사로 파견한 인물인 최훈십이랑(崔暲十二郎)이 청해진병마사(淸海鎭兵馬使)라는 직함을 띠고 활동한 점이 주목된다.<sup>63)</sup> 이러한 직함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다에서 출몰하던 해적에 대비하기 위해 무장력을 갖추었던 사정을 반영한다고 본다.<sup>64)</sup> 장보고 선단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직함을 지닌 인물들은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적의 활동이 심화되어 가던 상황이었으므로 용력이 뛰어난 자들을 승선시켜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을 것이다.

해적의 출몰이 빈번하던 해역에 대해서는 수군을 동원하여 직접적인 퇴치활동을 벌였을 것이다. 그 방식은 본영인 청해진과 요해처에 설치한 전초기지 간<sup>65)</sup> 협동하여 수군활동을 벌이는 체제를 구축하였을 것이다. 즉 해적의 위협에 취약한 요해지에서는 전초기지 소속의 군사들로 하여금 관

62) 이와 관련하여 910년대 나주에서 수군활동을 벌였던 태봉의 수군이 2천~3천명 수준이었음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후삼국으로 분열되어 상쟁하던 시대 상황과 흥덕왕대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대략적이나 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63) 『入唐求法巡禮行記』 권2, 개성 4년 6월 28일 ; 동서 권4, 회창 5년 7월 9일.

64) 徐命希, 2002, 앞의 논문, 16쪽.

65) 고경석, 2001, 앞의 논문, 155쪽.

할 해역을 방어토록 하고, 본영에서는 함대를 결성하여 주요 해상교통로를 주기적으로 순행(巡行)하면서 해적 퇴치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이다.<sup>66)</sup> 청해진이 관할한 해역은 완도를 비롯한 남해의 강진군과 해남군, 서해의 진도군과 무안군 및 영광군 등을 포괄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청해진의 관할 범위를 완도 근처의 고금도와 조약도, 신지도를 아우르는 정도로 이해하기도 하는데,<sup>67)</sup> 이처럼 좁은 범위만을 관할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 해역에서 발생하던 해적 행위를 제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청해진 소속의 전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다행히도 914년 태봉 치하에서 궁예가 왕건으로 하여금 전함을 건조토록 하였던 사례를 통하여 개략적인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즉 “태조(太祖)가 주가(舟舸) 1백여 척을 증치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선(大船) 10여 척은 각 방(方)이 각각 16보로 누노(樓檣)를 세웠으며 가히 말을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sup>68)</sup>고 한다. 이 대선의 크기에 대해서는 길이가 96척으로<sup>69)</sup> 대략 29m에 이른다고 한다.<sup>70)</sup> 이 정도의 전함이라면 당시로서는 매우 거대한 선박으로 소형의 전함에 비해 해전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작전반경 또한 넓었을 것이다. 신라 하대 이래 먼먼히 전해지던 조선 능력에 기초하여 이와 같은 규모의 선박이 건조될 수 있었을 것이다.<sup>71)</sup> 어찌면 이와 유사한 능력을 구비한 전함은 청해진이 수군활동을 벌이던 시기에도 일부 등장하여 활약하였지 않았을까 추정

66) 전초기지에 주둔하던 군사만으로는 규모가 큰 해적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초기지에 편성된 군사들이 담당 해역을 방어하되 청해진 본영에서 출정하는 함대가 주요 해상교통로와 전초기지가 위치한 해역을 순시하면서 퇴치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상항로를 순시하면서 해적선을 격파한 사례로 『高麗史』 권8, 세가8 문종 22년 6월 경신 : 7월 정유의 기사가 참고된다.

67) 徐命希, 2002, 앞의 논문, 15쪽.

68)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건화 4년 갑술, “太祖增治 舟舸百餘艘 大船十數 各方十六步 上起樓檣 可以馳馬.”

69) 金在瑾, 『우리 배의 歷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56~157쪽.

70) 신라의 영조척 1척이 29.7cm이므로 96척은 약 29m에 해당한다(李宗峯,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혜안, 2001, 42쪽). 북한의 성과에서는 17.5~35m로 보고 있다(오봉근, 1998, 앞의 책, 107쪽).

71) 최근식, 2005, 앞의 책, 64쪽.

된다.<sup>72)</sup>

한편 청해진 소속의 군사들은 도서지방에도 파견되어 해상방위 임무를 담당하고 도민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장보고가 죽은 뒤 일본으로 건너간 어려계(於呂系)를 비롯한 망명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장보고가 다스리던 섬의 '백성(島民)'이었다고 한다.<sup>73)</sup> 장보고가 청해진 소속의 군사들을 파견하여 도서지방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해상활동을 보장하는 노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장보고의 지배와 보호를 받아온 백성들인 양 표현하였을 것이다.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기 이전에 서남해안 일대를 방위하는 방수군에 차출되어 복무하였다고 전하는 기록도<sup>74)</sup> 신라가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았던 주요 도서와 연해안 지방을 대상으로 지방군을 배치 및 운영하였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연해안 지방과 포구, 내륙을 연결하여 발생하던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초기지에 파견되어 있던 수군과 기병, 보병이 상호 협공하는 전술로 퇴치하였을지하다. 수군은 해상에 방어망을 형성하여 도주하는 적들을 섬멸하고, 기병은 뛰어난 기동력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해적을 제압하고, 보병은 이들과 협공 및 지원하면서 퇴치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5)</sup> 일반적으로 기병 전술이 갖는 효과는 지리적인 환경과 군사제도, 방어체계, 보병과의 협력체계, 진법의 운용과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

72) 왕건이 대선을 건조하기 이전에 나주를 공취하고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장악하였던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왕건은 903년에 수군을 거느리고 송악을 출정, 나주와 서해 남단에 위치한 도서지방에 대한 원정작전을 수행하였다. 청해진의 수군활동 능력과 작전 반경을 왕건의 활동과 동일시하기는 제한되지만, 완도를 비롯한 남해의 강진군과 해남군, 서해의 진도군과 무안군 및 영광군 등을 포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3) 『續日本後記』 권11, 승화 9년 정월 10일.

74) 『三國史記』 권50, 열전 견훤.

75) 사실 해적활동에 대해 수군과 기병, 보병이 협공전술을 구사하여 퇴치한 경우는 기록상 잘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고려 정종 10년(1044)에 함경도 정평과 원흥진을 관할하던 병마사 소속 군사들이 요충지를 지키면서 해전과 육전으로 적을 방어한 사례(『高麗史』 권 6, 세가6 정종 10년 11월)와 912년 덕진포해전에서 태봉의 수군함대에 대응하기 위해 견훤이 수륙협공체제를 구축한 사례(신성재, 2007, 앞의 논문, 83~84쪽)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다고 한다.<sup>76)</sup>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병과의 잘 짜여진 협력체계는 기병의 전투 역량을 한층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청해진의 기병들은 보병과의 협력이 용이한 전술 체계를 근간으로 바다와 접속하는 수역과 내륙 등지에서 발생하던 해적퇴치 활동에서 크게 활약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청해진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상군진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그 군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없이 수군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청해진의 군사에 대해서는 수군으로 명명하는가 하면 장보고에 대해서는 수군장 또는 수군지휘관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해 방식과 인식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해진의 군사조직에서 기병과 보병의 모습은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무주·대구전투를 비롯한 청해진 군사의 수군활동을 통해 확인되듯이, 해상방위를 목적으로 설치된 청해진의 군사 조직에는 수군뿐만 아니라 기병과 보병이 상당한 병력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적이다.

청해진의 군사조직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병력 구성상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군사 편성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군 제도가 짜임새있게 정비된 시기인 세종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충청도 병마도절제사가 올린 장계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잘 나타난다. “비록 활쏘기(射御)에는 기술이 부족할지라도 능히 창검을 쓸 줄 아는 자와 능히 멀리 달릴 수 있는 자는 그대로 이전처럼 별패(別牌)에 붙이고, 보사(步射)에는 능하나 말타기(鞍馬)에는 익숙치 못한 자는 수군(水軍)에 붙이고, 한 가지 기예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자는 잡색군(雜色軍)에 붙이게 하소서.”<sup>77)</sup> 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병종을 구분하고 운용함에 있어 병사 개개인이 지닌 재능 정도를 고려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징집한 군사를 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되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아 이 시기 청해진을 정점으로 하는 신라의 해상방위체제는 기본적으로 병종을 구분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형성되었을 것

76) 李弘斗, 『高句麗의 對外戰爭과 騎兵戰術』 『白山學報』 68, 白山學會, 2004, 6쪽.

77) 『世宗實錄』 권1, 즉위년 9월 술진, “雖短於射御 而能用槍劍者 能遠走者 仍舊屬別牌 能步者 而鞍馬不實者 屬水軍 無一藝可取者 屬雜色軍.”

이다. 즉 수군은 해상에서의 해적퇴치 활동을 전담하고, 기병과 보병은 내륙지방에서 발생하던 해적을 퇴치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방식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유지되어왔을 군사운용의 전통적인 방식에 비추어 볼 때에는 병종을 넘나들며 해상방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도 지속되고 있었다. 해안 지방과 포구, 도서지방에서 활동하던 해적을 퇴치하는 경우가 그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해적 퇴치활동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병종으로 구성된 군사들이 투입되고, 군사활동 역시 해전과 지상전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병종간에 설정되었을 방위 영역과 고유한 임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예컨대 해안과 도서지방에서 응거하던 해적을 소탕하는 상황에서 수군은 전함을 이용하여 기병과 보병을 이동시켜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고유한 선상전투를 수행함은 물론 지상에 상륙하여 전투를 벌이는 행위도 병행하였을 것이다. 전함에 기병이나 보병을 태운 채 이동하여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던 단계였으므로<sup>78)</sup> 수군과 기병, 보병의 임무와 역할은 가변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수군에서 보병으로의 임무의 변경은 비교적 용이하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육상에서 근무하는 병력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수군으로 편성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sup>79)</sup>

이러한 사실은 신라 말기 수군의 제도적 발전 수준과 연관하여 청해진이 다양한 병종을 근간으로 하는 해상방위체제를 형성하였던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수군의 제도적 발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시된 성과를 보면 그 시점에 대해서는 논자들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고려시대까지는 수군이 독자적인 병종으로 분화 발전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sup>80)</sup> 수군만의 독자적인 지휘체계가 뚜렷하게 성립

78) 고경석, 2009, 앞의 논문, 36쪽.

79) 이창섭, 『高麗 前期 水軍의 運營』 『史叢』 60, 高大史學會, 2005, 18쪽. 일반 병졸이 아닌 장군의 사례로 궁예가 수군을 총지휘하던 왕건을 보좌하는 부장에 보병장수를 임명한 사례가 있어 참고된다(『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건화 4년 갑술).

80) 김남규, 『高麗의 水軍制度』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 趙二玉, 1999, 앞의 논문 ; 이창섭, 2005, 위의 논문 참조.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 역시 지상전과 유사한 형태로 지속되었으며, 무기체계 역시 수군만의 전문적인 운용이 요구될 만큼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듯이 파악되는 것이다. 수군의 제도적 발전 수준이 이와 같은 단계였으므로 병종을 넘나드는, 비교적 유연한 형태의 해상방위체제는 신라 말기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sup>81)</sup>

해적의 규모와 약탈공간에 대응하는 전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수군의 관직과 기구, 지휘체계, 전투방식, 무기체계 등이 미발달하였다고 하는 사실 역시 해상방위를 목적으로 설치된 청해진의 군사조직에 다수의 기병과 보병이 필연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 5. 맺 음 말

흥덕왕대 신라는 서남해역 일대에서 발호한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 청해진에 대해서는 해상군진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그 구성원 역시 막연히 수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청해진 소속의 군사들이 전적으로 수군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838년 3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치러진 청해진의 군사와 신라정부군간의 무주·대구전투 전황을 보면 수군과는 별도의 존재로 마군과 보군이 크게 활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군 3천의 존재는 매우 정예로웠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였음을 말해준다. 청해

81)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수군이 미분화하였고, 독자적인 군종으로 성립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의문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고대 이래 병력을 편성하고 부대를 조직함에 있어 병종 구분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고려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군의 분화와 독자적인 병종에 대해서는 독자성의 개념과 범위 등을 중심으로 신중한 고찰이 요망된다.

진 군사의 구성이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자체가 단순히 해상활동만을 위한 곳이 아닌 해상과 내륙을 망라하여 발생하고 있던 해적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여러 연구성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청해진 설치를 전후로 활동한 해적은 단순한 초적의 수준을 벗어나 정규군도 가뻐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해전 능력을 지닌 숙련된 집단이었다. 청해진이 설치되던 시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9세기 말 신라 해적의 대마도 습격사건과 10세기 초 태봉의 수군활동을 위협한 능창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해적은 해상은 물론 도서와 연해안 일대, 포구, 내륙 등지를 그물망처럼 연결하면서 체계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약탈 행위를 일삼았다.

해적의 규모가 강성하고 조직적인 약탈 행위를 일삼던 수준이었으므로 청해진의 병력은 그에 대응하기 적합한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었다. 주목되는 조치로 신라정부가 장보고에게 1만의 병력을 사여한 점이다. 이 1만의 군사에 대해서는 당시 신라가 처한 상황이 그와 같은 정도의 군사를 내어줄 형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완도 일대에서 동원한 변민을 주축으로 구성된 것인 양 이해되어 왔다. 필자 역시 완도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지방민들이 일부 동원되었을 가능성에 동의한다. 다만 그러한 군사들이 일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 1만에는 청해진 설치시에 흥덕왕이 사여해 준 정예 군사와 이전 시기부터 서해안의 변경 지방에 설치하여 운영해왔던 여러 성과 진 소속의 군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해진 군사의 수군활동은 해적의 출몰이 빈번하던 주요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수군을 동원하여 직접적인 퇴치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연해안 지방과 포구, 내륙을 연결하여 발생하던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초기지에 파견되어 있던 수군과 기병, 보병이 상호 협공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을 것이다. 수군은 해상으로 도주하는 적들을 섬멸하고, 기병은 뛰어난 기동력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해적행위가 발생하던 지점을 습격하며, 보병은 이들과 협공 및 지원하는 전술을 발휘하여 효과적인 퇴치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기본적으로 병

종을 구분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수군은 해상에서의 해적퇴치 활동을 전담하고, 기병과 보병은 내륙지방에서 발생하던 해적을 퇴치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이 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동안 유지되어왔을 군사운용의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병종을 넘나들며 해상방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도 지속되고 있었다. 수군만의 독자적인 지휘체계가 뚜렷하게 성립하지 못하였고, 전투 방식 역시 지상전과 유사한 형태로 지속되었으며, 무기체계 또한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단계였으므로 병종간의 임무와 역할은 가변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었다. 해적의 활동공간에 대응하는 전술적인 측면 못지 않게 수군의 관직과 기구, 지휘체계, 전투방식, 무기체계 등이 미발달하였던 사실 역시 해상방위를 목적으로 설치된 청해진의 군사조직에 다수의 기병과 보병이 필연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0. 12. 30, 심사수정일 : 2011. 1. 24, 게재확정일 : 2011. 2. 1.)

주제어 : 청해진, 장보고, 흥덕왕, 해상방위, 수군, 기병, 군진, 해적

<ABSTRACT>

## Marine Defence and Military Working of the *Cheonghae* Garrison

Shin, Seong-jae

During the reign of King *Heungdeok*, *Silla* had established *Cheonghae* Garrison in order to eliminate pirates that ran rampant in the southwestern seas of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garrison was previously regarded as maritime military barracks, its component was also strongly thought to be a naval force. However, *Cheonghae* Forces were not solely comprised of the navy. During the period between 838 and 839, the very existence of 3,000 cavalry out of 5000, that displayed superb abilities by defeating the *Silla* Government Army of 100,000 strong at the battle of *Muju* and *Daegu*, clearly demonstrate such fact. In fact, *Cheonghae* garrison was the military unit that was organized with not only the navy, but also cavalry and infantry as well.

Such characteristics stemmed from the need to efficiently combat the threats of pirates which marauded on both land and sea. Especially, the pirates active during this period operated in a cohesive manner, connecting the sea, islands, coasts and inland based on their dominant powers. It was the time when the scale of piracy reached its peak, so that the forces of the *Cheonghae* Garrison had to be organized accordingly. It was this very reason which made King *Heungdeok* assign 10,000 men to the garrison. This force was presumably made up of elite soldiers awarded by the king at the time of *Cheonghae* establishment, regional soldiers who belonged to fortresses and garrisons of the west coast but were restructured by the king to give commanding powers to Jang Boko, and inhabitants of the

frontier regions nearby Wando Island.

The maritime activities of *Cheonghae* Garrison soldiers were basically conducted on the differentiation of military units. Navy was fully responsible to oust the pirates at sea, while cavalry and infantry were to rout the pirates inland. Despite such division of roles, tradition endured as the units took multiple functions in terms of guarding the seas. This was because there was no independent command system of the navy at the time, battle method also was similar to land battles, and of the fact that the weaponry system did not develop significantly. Consequently, duties and roles of different military units were bound to be operated flexibly. The very fact that the *Silla* Navy was underdeveloped in respect to system, strategy and tactics, and arms partly explains the essential composition of cavalry and infantry as a majority of *Cheonghae* Garrison's military organization, which was initially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maritime defence.

Key Words : *Cheonghae* Garrison(청해진), *Jang Bogo*(장보고), King *Heungdeok*(흥덕왕), Marine Defence(해상방위), Naval Force(수군), Cavalry(기병), Garrison(군진), Pirates(해적)

